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불자 감소...대안은 새싹포교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어린이 포교 중요”...말잔치만 할 것인가?

대불어 3100여 사찰 현황 조사

어린이법회 운영한다 9.4%

본지 긴급 설문

법회개설 의사 없다 40%

“불교미래 어디서 찾나?”

폭넓은 대책마련 발등의 불

201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 축제. 아이들과 학생들이 연등을 들고 신나게 행진하던 10년 전 제등행렬 때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중·장년층 불자들이 눈에 띌 뿐이다. 유심히 찾아보지 않으면 청년층도 쉽게 만날 수 없다. 어린이·학생·청년 불자들이 없어 재기발랄하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아~ 옛날이여!’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법한 상황. 물론 가상 시나리오다. 하지만 현재의 어린이·청소년 포교 현실을 보면 이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런 결과는 결국 청년불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30~40년 뒤에는 중·장년층 불자마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3,100 여곳 사찰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법회를 운

영하고 있는 사찰은 294곳인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어 조사 직후 실시한 본지 설문조사에서는 재원이나 지도법사(교사) 등이 지원돼도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개설할 생각이 없다는 사찰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는 곳’도 적고 ‘하겠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사실 이같은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2003년 11월 대불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 어린이법회 참가 인원수가 연간 11%씩 감소하고 있고, 이와함께 어린이법회를 그만둔 사찰 수도 상당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전에도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말뿐이었다. 스님이나 신도들은 한결같이 “불교의 미래를 위해 새싹포교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말로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개신교나 천주교의 청년층 신도가 늘고 있는데 반해 불교의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음은 불교의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구두선’임을 반증한다.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방법이나 프로그램에 문제는 없는지, 투자를 기울여 하지는 않았는지 등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어린이·청소년 포교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불교 종파 자체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종단 차원의 체계적 전략 수립,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이런저런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쯤 더 들릴 설 곳 없는 벼랑끝이다. 더 이상 종단에게, 사찰에게, 지도자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모두가 나서야 한다. 여기에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종교인구 늘어났는데 불자수는 제자리 걸음

종교인구로 본 불자 증가 현황

종교인구비율은 지난 1995년을 기점으로 50%대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증가율도 1년 평균 0.34%로 만만치 않은 성장세를 보였다. 현재 인구 4천8백만여 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16만여 명씩 종교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85년, 95년, 2003년 등 세 차례 조사한 종교인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통계자료는 '85, '95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전수조사와 7만여 명을 면접 조사한 '2003 사회통계조사' 등이며, 분석 대상은 만 15세 이상 인구로 제한했다.

이들 통계자료에 따르면, 종교인구 비율은 47.1%(85년), 53.5%(95년), 53.9%(2003년) 등으로

이는 것은 무종교인의 불교유입 동기부여가 부족했고, 여기에 소극적인 포교활동도 한 몫을 했다고 말했다.

불교인구연령층 '양극화 현상' 여전

통계청 조사 결과 불교인구 비율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인구비율보다 높아지는 연령이 85년 조사에서는 30대 이전이었던 반면, 95년부터는 40대로 늦춰졌다. 양극화 현상의 분기점이 40대로 후퇴됨에 따라 불교인구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갈수록 2~30대 청년층에서 타종교 신자가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같은 지적은 85년 30대 불교인구비율에서 확인된다. 30대 불교인구비율(25.4%)이 개신교(17.9%)와 천주교(5.7%)를 합한 비율보다 1.8%

종교인구 지난 20년간 6.8% 증가

불교 1.6 천주교 2.6 개신교 3.5%

불자 노령화 뚜렷...타종교는 반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년 동안 총 6.8%가 늘었다.

통계청 사회통계과 우사임 사무관은 "80년대 들어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령층의 종교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또 종교별로 적극적인 포교·선교활동으로 젊은층의 종교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불교인구는 제자리걸음이다. 20년간 종교인구 총 증가율은 6.8%, 이중 개신교는 3.5%, 천주교 2.6% 증가율에 비해, 불교는 불과 1.6%. 85년 전체인구 대비 23.7%였던 불교인구가 20년이 지난 2003년에도 25.3%로 사실상 그대로다. 이는 개신교가 불교보다 매년 평균 2배 이상을 성장했다는 점과 대조적인 통계수치로,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포교사회학과)는 "불교인구가 타종교에 비해 제자리걸음의 증가율을 보

가 높았다. 하지만 95년을 고비로 동일 연령대 불교인구는 24.8%로 줄어, 개신교(20.0%)와 천주교(7.1%)를 더한 27.1%보다 2.3%가 낮아졌다.

30대를 제외한 15세 이상 불교인구의 '저 청소년·청년층, 고 중·노년층'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5~29세(청소년·청년층) 종교별 평균 비율의 경우, 불교는 19.3%(95년)→19.2%(2003년)인 반면, 개신교는 20.8%→23.2%, 천주교는 6.3%→7.1%였다.

이외는 반대로 40~60대 이상은 불교 33.8%(95년)→32.8%(2003년), 개신교는 16.5%→19.1%, 천주교는 6.7%→7.8% 등으로 나타났다.

김응철 교수는 이와 관련 "불교계가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등한시한 결과"라며 "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젊은층 불자가 줄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이들 계층 포교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20th SK Telecom 1984-2004

미국 SkyCross사에 투자 및 운영의 확보
미국 Verizon Wireless사의 1xEV-DO를 위한 확보

글로벌 파트너가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정보통신은 강해집니다

대한민국에겐 나라 40여 개 더 큰 정보통신 명도가 있습니다. 세계로 시야를 넓리면 더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휴대용 혁신기술을 보유한 4G LTE, 3G+로 투자해 새로운 기술 모멘텀 확보는 우리 코스닥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국에 "UNSK" 무선인터넷 현지화 사업을 먼저 실행하는 일까지 -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일, 20년을 그렸듯이, 언제나 우리는 SK텔레콤입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열다 SK Telecom